

태국, 미국과 FTA 협상개시

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빠르면 6월중에 시작된다. 미국의 아시아전략의 일환으로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 FTA 체결의 추진하는 국가가 된다. 미국과의 FTA 체결국 중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상대국인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무역규모를 가진 태국과의 FTA는 미국의 수출기회를 증대시킬 커다란 비즈니스 기회이기도 하다.

한편, 태국은 이미 호주와 FTA에 실질적으로 합의한 상태이고, 중국, 인도와는 기본틀에 대한 합의를 끝냈다. 태국은 미국과의 FTA 조기체결로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서의 경제적 우위 확보를 노리고 있다. 협상시작을 앞둔 미국과 태국 FTA를 둘러싼 양국의 줄다리기에 대해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언급하면서 정리한다.

1. 태국과의 FTA 협상을 우선한 미국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2003년 6월 10일 미국을 방문한 태국의 탁신 총리와 FTA 협상 개시에 합의하고, 같은 해 10월에 태국의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APEC) 정상회담에서도 그 의의를 강조했다.

작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가 개도국과 선진국의 대립으로 결렬됨에 따라, 미국은 양국간 관세철폐에 의

한 자유무역추진을 가속시켰다. 로버트 쥘릭 무역대표부 대표는 작년 12월 까지 중미국가들(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과의 FTA를 정력적으로 협의하고, 올해 2월에는 호주와 FTA를 합의하고, 또한 3월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모로코와의 협상을 끝냈다. 또한 중동의 바레인, 남부 아프리카 관세동맹국가(남아프리카,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랜드)와는 협상중이다. 그리고 아시아지역은 2001년 12월 WTO 가입시 큰 폭의 자유화를 약속 받은 중국은 차치하고, 부시대통령은 2002년 8월에 무역진흥권(TPA)을 획득한 이래,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행동계획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FTA 협상을 벌여 왔다.

미국은 싱가포르 다음의 목표로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을 들었는데 올해의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의 총선 등을 고려하여 태국을 최우선국으로 하여 6월경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ASEAN 10개국 중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이은 2위, 1인당 GDP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이은 3위이다. 또한 2003년 미국과 태국의 무역실적은 미국의 대태국 수출액이 58억 달러, 수입액이 152억 달러로 미국의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 대폭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이다. 태국에게 미국은 최대 수출상대국이면서 일본에 이은 수입상대국이며, 무역총액에서는 일본의 뒤를 이어 2위의 무역상대국이다.

미국에게 있어 태국은 미국과의 FTA 체결국 중에서는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에 이어 4번째로 무역액이 큰 중요한 상대국이다. 미국은 태국에 대해 금융, 통신, 자동차, 농업관련 투자와 무역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태국측에게는 이들 4분야와 함께 지적소유권, 정부조달이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조기체결을 원하는 양국 정상의 희망과는 달리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2. 농업분야의 양국의 목표

태국 최고의 싱크탱크인 태국개발연구원(TDRI)에 의한 미국과의 FTA에 관한 조사보고에 따르면, 농림수산물 거래에서 태국측이 경쟁우위에 있는 수출품목은 쌀, 새우, 브로일러, 고무, 과일, 채소, 생선통조림 등이고 미국측이 비교우위에 있는 수출품목은 대두, 옥수수, 감자, 땅콩 등으로 예상된다.

태국의 2002/03년도의 쌀 생산량은 전년도와 비슷한 1,650만톤을 기록하였다. 태국은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으로 인도, 베트남, 미국이 그 뒤를 잇는데, 이들 상위 4개국이 전세계 쌀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태국의 2002/03년의 쌀 수출량은 775만톤에 달할 전망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수출국은 나이지리아, 세네갈,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홍콩 등으로 상대국은 세계 120개국에 이르며 그 수출의 대부분을 민간기업이 맡고 있다. 또한 일본에도 최소시장접근(MMA) 수입미로 들어오고 있다. 태국 정부는 중국, 베트남, 인도와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고품종쌀(고급향기쌀)과 함께 '슈퍼라이스'라고 하는 교잡종쌀의 생산을 늘려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출확대를 꾀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 의한 수출용 쌀은 약 4분의 3이 장립종(인디카)으로 대부분이 중미와 브라질 등 남미로 수출된다. 태국산 쌀 국제가격은 미국산의 거의 절반가격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아프리카나 중동을 비롯해 미국에서도 경쟁우위에 있다.

이번 FTA 협상에서 미국은 국내농업의 보호를 도모하면서 태국측 농산물에 대한 수입허가와 관세할당제한, 그리고 신기술에 관한 수입제한 등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해 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WTO 농업협상에서 수출보조금문제 등으로 태국과 협력관계에 있는데, 태국측의 관세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의 투명성 향상과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설탕 등에 대해서는 태국은 브라질, 유럽연합(EU)에 이어 호주와 함께 세계 3위의 수출국인데, 미국은 최근 호주와 FTA 체결로 설탕을 관세철폐 제외품목으로 지정하여, 철저하게 국내 설탕생산자를 보호할 자세를 표명하고 나섰다.

3. FTA 거는 탁신 총리의 기대

태국의 탁신 총리는 미국과의 FTA협상이 1년 이내에 타결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미 이웃나라 싱가포르와는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틀 안에서 상호 관세철폐를 추진하고 있고, 호주와도 올해 안에 FTA 최종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싱가포르, 호주 등 3국은 각각 양국간 FTA 체결을 끝낸 상태다. 미국과 태국간에 FTA가 체결되면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미국, 태국, 싱가포르, 호주 등 4개국은 무역과 투자면의 연대가 강화되게 된다.

또한 중국은 2001년 12월 WTO 가입이 결정된 직후, ‘穩東, 擴西, 拓南, 開北’의 8글자로 대외 경제전략을 발표하였다. ‘穩東(온동)’이란 일본, 한국, ASEAN 국가들을 가리켜, 이 지역에서의 무역발전을 꾀한다는 해석된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태국은 2002년 11월 ASEAN 국가(10개국)의 일원으로서 2010년까지를 목표로 ASEAN·중국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에 합의하고, 2003년 10월부터는 예정보다 앞당겨 최대 60%이었던 채소, 과일 등의 농산물 약 200개 품목의 관세철폐를 단행하였다.

관세를 철폐한지 반년만에 중국산 사과, 배, 포도, 귤, 마늘, 감자, 양파

등이 대량으로 태국에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들 농산품은 태국과의 국경과 접해있지는 않지만 중국의 윈난성(運南省)에서 라오스를 거쳐 태국과의 국경을 지나 베트남의 호치민시로 흐르는 메콩강의 배편으로 운반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 결과, 태국 북부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마늘, 양파는 품질과 가격 모두 중국산 제품에 밀리기 시작했다. 태국 정부는 특히 큰 타격을 입은 마늘 농가에 대해 구제조치를 강구하고, 식부 전환을 촉진하기 시작했다.

한편, 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농산품의 90% 이상이 카사바(타피오카 전분)로서 알콜 원료용 칩과 가축사료용 펠렛이다. 중국의 WTO 가입 직후에 대폭 늘어난 데 비해 이번에는 중국 지방정부 및 세관에 의한 식물 검역 및 품질검사 등의 비관세장벽에 부딪쳐 생각만큼 수출실적이 늘지 않고 있다.

4. 향후 아시아 FTA·EPA에 미칠 영향

탁신 총리는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한 2001년 2월 태국의 애국당에서 총리로 취임하여 재임 4년째를 맞이한다. 경제적 연계가 깊은 일본, 중국, 미국과의 균형에 관심을 가지면서 국내에서 정치적 기반을 다져 왔다. 탁신 총리는 싱가포르의 적극적 FTA 전략을 의식하여 FTA를 국내 경제구조 개혁의 기폭제로 이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계 탁신총리와 싱가포르와의 밀접한 관계는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동남아시아 최대의 식품복합기업으로 중국 각지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벌이고 있는 태국 찰로엔 폭판(CP) 그룹 일족인 와타나씨를 상업부 장관으로 기용, 태국·중국간 FTA 협상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였다.

탁신 총리는 국내적으로는 ‘일촌일품운동’ 등 농촌진흥대책과 중소기업

중시의 빈곤층 대책을 내놓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ASEAN의 주도국이 되기 위해 중국과의 무역확대를 지향하면서 대미 수출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 및 환율 면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어 위안화와 연동한 정책도 고려하기 시작했다.

태국은 중국과의 사이에서 농산물 관세철폐를 앞세웠지만, 공산품의 관세철폐에는 과제가 많이 남겨져 있다. 일찍이 밀접한 관계를 가져 온 일본과의 사이에서도 경제연계협정(EPA) 협상이 올해 2월부터 시작되었다. 태국의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의 약 90%는 일본산이며, 미국의 자동차관련산업의 진출이 한발 늦은 감이 있다. 태국은 일본계 기업과 함께 부품조달, 조립공장의 집약으로 세계를 향한 자동차 등의 수출기지로 변모하였다.

일본과 중국이 아세안 국가들과의 FTA·EPA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 미국을 움직였다고도 할 수 있지만, 미국에 의한 태국과의 FTA는 중국과 일본을 강하게 의식한 미국이 아시아지역의 균형을 취하려는 경제전략이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 향후 미국과 태국의 FTA 협상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자료 : <http://www.zenchu-ja.org/wtonougyo.htm>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